

학령전 아동의 사회역할 개념 발달

Social Role Development in Korean Preschool Children

우 남 회*

Woo, Nam Hee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d children's learning process concerning age and gender, two of the most apparent social rol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72 Korean preschool children between three to five years of age. The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problems of developmental sequence and horizontal decalage in understanding of these social roles. Two five-step knowledge sequences of age growth and sex constancy were administered utilizing skill theory (Fischer, 1980). Each step in a sequence had different stories of age or sex role with increasing cognitive complexity, but the two sequences were equivalent in complexity. The children were tested under two different assessment conditions: high support condition of elicited imitation and low support condition of free play and the best story.

The findings show that, the understanding of age and sex roles develops through the predicted five-step sequences. The understanding of age role seems to develop earlier than that of sex role although the developmental patterns of the two roles are similar. Variations in the children's performances under different conditions were dramatic, especially for the older children.

I. 서 론

어린 아이들은 각기 독특한 사회에서 태어나 그 사회가 규정하는 규범들과 역할들을 배우면서 자란다. 이들이 주어진 사회 속에서 유능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의 여러 가지 규범들과 역할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하지만, 사회는 이런 모든 것들을 순서적으

로 체계있게 이들에게 제시하거나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아이들 자신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접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그것들을 분석하고 조직함으로써 점차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다.

인간의 나이와 성은 자연적 범주이며, 특히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특징이므로 어린 아동들이 사람을 구별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많이

*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Edwards, 1984; Lewis & Brooks-Gunn, 1979; Kagan, Mount, Hiatt, Linn, Reznick, Richman, & Katz, 1981; Van Parys, 1983). 그러나, 나이와 성은 자연적 범주이면서 동시에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사회적 범주이며 사회적 역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어린 아동들이 이러한 사회 범주, 역할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에서 규정하는 정의에 따라 정보를 조직하여야 한다(Bem, 1984). Lewis와 Brooks-Gunn(1977)은 어린 아이가 성과 나이에 따라 사람들을 그룹지어 명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언어 발달과 표상적 사고가 생기기 시작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며, 7개월 된 아기들도 어른과 아이에게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연구들은 학령전기의 어린 아동들이 아직 나이와 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Kohlberg, 1966; Edwards, 1984). 예를 들면, Piaget(1969)는 4세 아동들이 자신들이 점점 커진다는 것은 알지만 성인들이 점차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다른 연구들도 아동이 나이를 먹는 것과 커진다는 것을 혼동하거나 같게 생각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Edwards, 1984; Kratochwill & Goldman, 1973; Looft, Rayman, & Rayman, 1972). Kuhn과 그녀의 동료들은(1978) 2세 아동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추구하는 전형적인 성역할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피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며, 3세 아동들은 각 성에 따른 행동범주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4세경 아동들은 거의 완벽하게 사람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의 불변(gender constancy), 즉 어떤 사람이 옷이나 머리모양

을 바꾼다해도 그 사람의 성은 일생동안 변하지 않고 그대로 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하였다. Kohlberg(1966)도 아동의 안정된 성정체감(gender identity)은 7세 정도에야 이루어지며 이는 이후의 아동의 성역할 행동을 주도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em(1988)은 아동이 생식기의 차이를 알고, 남녀 구별에서 사회적 단서보다 생식기의 단서가 우세하다는 것을 안다면, 3세에서 5세 사이의 어린 연령이라도 정보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아동의 나이역할과 성역할의 개념이 학령전기 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느 단계 만큼 발달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이 두 역할에 대한 이해의 발달을 통하여 발달심리학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발달의 순서(developmental sequence)와 수평적 처짐(horizontal decalage)의 문제들을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아동이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나이와 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주 어린 연령에는 두가지 면을 동시에 조절할 수 없으므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Fischer와 Watson(1981)은 Freud가 말하는 소위 Oedipus complex란 아동이 사람의 나이 차이와 성의 차이를 동시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6-7세가 되어 나이와 성이라는 두가지 범주를 통합할 수 있게 되면 이러한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어린 아동들이 사람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하여 초기에 사용하는 나이와 성, 두가지의 개념발달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인지발달과 연관시켜 사회적 발달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Fischer(1980)의 기술이론(skill theory)을 바탕으로 하여 3세부터 5세 아동들이 인지발달 단계에 따라 나이변화(age growth)와 성불변(sex constancy)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나이와 성역할에 대한 이해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이론과 사회역할 발달

Fischer의 기술이론은 학령전의 어린 아동들 일지라도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사회적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예언한다. 이 이론은 발달에는 일련의 수준들이 있음을 가정하며 개인의 능력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또 환경적 조건들은 어떻게 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Fischer에 의하면, 인간의 각 기술(skill)들은 4개의 층(tier)으로 나눌 수 있는 13개의 연속적인 수준을 거쳐 점진적으로 발달한다고 한다. 각기 매우 다른 유형의 기술들로 구성되는 층들은 반사기술, 감각운동기술, 표상기술, 그리고 추상기술층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수준이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기술의 복잡성을 나타내는데, 한 수준의 기술은 이전 수준의 기술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4개의 수준이 한 층을 이루고 있다. 각 층의 네번째 수준은 다음 층의 첫번째 수준이 되어 13개의 수준이 4개의 층을 이루게 된다. 각 수준의 기술들이란 어떤 사람이 그의 환경에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사람은 모든 기술에 있어서 동등한 수준일 수는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기술이론은 아동발달의 미세한 단계들을 설정하여 사회역할개념의 단계적 순서적 발달을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각 역할 개념에 대한 이해수

준이 서로 상이할 수 있음도 설명하여 주고 있다.

Watson(1981)은 의사와 환자의 역할 그리고 가족역할의 발달을 기술이론에 근거하여 14개의 단계로 나누어 봄으로써 사회역할의 발달에도 순서가 있음을 밝혔다. 과제와 역할에 따라 각 단계에 도달하는 연령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사회역할 개념의 발달에 기초가 되는 사회인지 발달의 구조는 다른 영역에서 보이는 발달과 병행한다고 하였다. Van Parys(1983)은 기술이론을 바탕으로 6단계의 발달 순서를 설정하고 학령전 아동들의 나이변화와 성불변성에 대한 발달을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아동의 나이와 성역할의 개념 발달을 보기 위하여 Van Parys의 6단계 발달단계 중 내용이 겹치는 여섯번째 단계를 빼고 앞의 5단계의 발달과정을 분석하였다.

발달의 순서

지금까지 발달심리학에서는 사이에는 아동들이 실제로 일련의 발달단계를 거쳐 성장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어왔다(Bertenthal, 1981; Fischer & Bullock, 1981; Flavell, 1971; Wohlwill, 1973). 발달을 단계로서 설명하는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발달적 변화란 매우 극적이며 불연속적이고, 질적인 변화가 여러 면에서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Piaget에 따르면, 아동의 사고는 상당히 급작스러운 변화가 전반에 걸쳐 일어나며 이것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구조(structured whole)가 출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Fischer, 1981; Gardner, 1983). 따라서, 한 인간은 하나의 독특한 발달단계에 속하도록 특징지워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신피아

계화자들은 어떤 능력이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인정하지만, 여러 다른 능력들이 동시에 항상 단계처럼 나타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Fischer & Lazerson, 1984).

발달의 순서들은 발달적 변화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발달의 연속성도 보여준다. 발달의 순서를 봄으로써 우리는 주로 언제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 발달이 불연속적으로 보이며, 언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 연속적으로 보이는지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가지 유형의 행동이 어떻게 점차 다른 유형으로 변하여 가는지도 알 수 있다. 물론 발달의 순서가 측정의 순서일 뿐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Brainerd, 1978). 그러나 Bertenthal(1981)이 주장하듯이, 아동이 항상 측정의 순서가 예측하는 것처럼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일관성있게 진보하지는 않는다. 측정의 순서는 대개 발달적 변화란 양적인 증가를 나타낸다고 가정하지만 어린아동의 인지 발달은 양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함께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다(Fischer et al., 1984; Keil, 1981).

Piaget(1928)는 가족역할을 정의함에 있어서 학령전 아동과 학동기 아동간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학령전 아동은 가족역할을 독특한 개인적 특징에 따라 규정을 하지만 학동기 아동은 역할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규정을 한다고 하였다. Edwards(1984)는 나이에 따라 사람을 그룹지우고 명명을 하는데 있어서 학령전 아동들 사이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학령전 아동들 중 좀더 나이가 든 아동들은 사람들을 분류하는데 더 분화된 구조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자신들의 나이와 성역할을 혼동하는 3세 남아들은 자신을 “큰아이들”의 부류에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이를 혼동하지 않는 4세들은 3세 남아들보다 자신을 “큰아이”로 규정하는 것이 줄어든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나이역할과 성역할 개념의 발달적 순서를 보기 위하여 나이변화과제와 성불변과제를 각각 선정하였으며, 두 과제는 인지구조상 복잡성이 대등하도록 각 과제에 5단계를 설정하였다. 나이변화과제는 전형적인 나이-역할행동과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를 다루었고 성불변과제는 전형적인 성역할행동과 표면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루었으며, 각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내용이 복잡하게 이루어 졌다. 나이변화과제의 첫 단계는 인형을 나 이외의 능동적 주체(active other)로 이해하는 단계이며, 다음 단계는, 어떤 역할의 행동(behavioral role)을 이해하는 단계로서 아이나 어른에게 맞는 역할들을 해 보일 수 있으며, 세째단계는 하나의 역할행동을 다른 역할행동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는 단계(shifting behavioral role)로서 어른역할과 연관시켜서 아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이며, 네째단계는 나이변화의 한 측면의 변화(one-dimensional change for age growth)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이며, 다섯번째 단계는 나이변화에서의 여러측면의 변화(multi-dimensional changes for age growth)를 이해하는 단계이다. 성불변과제의 5단계는 나이변화과제의 단계들과 일치하며, 단지 내용을 성에 관한 것으로 바꾸었다.

수평적 처짐

Piaget의 이론은 모든 사람이 다 거치는 발달의 보편성을 가정하여 각 단계에 속한 모든

아동이 일반적인 능력을 보인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한 단계에 있는 아동이 모든 과제에서 항상 동일한 능력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Piaget는 사람영속성과 대상영속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현상을 수평적 처짐이라고 하였지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Fischer, 1980). Piaget가 말하는 구조화된 전체라는 개념은 아동의 사고의 전반적 특징은 설명하지만, 아동이 여러 영역에서 보이는 각기 다른 능력은 설명하지 못한다. 심피아제 학자들은 아동을 어떤 특별한 단계에 있는 존재로 설명하지 않고 아동의 구체적 행동이 어떤 수준에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수평적처짐의 현상을 설명하려 한다(Case & Khnna, 1981; Fischer, 1980; Gardner, 1983).

Case는 Piaget의 이론을 근거로 발달의 단계를 설정하였으나 아동들이 연령이 같다고 주어진 모든 과제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과제들의 구조가 동일하다고 하여 아동이 각 과제에 대해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아동이 어떤 과제에 대하여 이전에 충분한 경험을 하였을 경우 더 어린 연령에 해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전략의 발달에도 특별한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논리적, 수학적 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Piaget가 설명하는 보편적 논리 구조라는 것은 규정짓기가 어려우므로, 그는 나이에 따른 직접기억(immediate memory)의 지속기간이나 범위의 증가로 발달의 보편성을 설명한다. 그는 기능적 작업기억(functional working memory)을 제대로 조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각 영역마다 전략

을 사용하는 연령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1985).

Fischer(1980)도 Case처럼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동들의 능력은 그들이 학습을 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그는 아동의 여러 기술들은 한번에 하나씩 정교화 되는데 이 정교화란 아동이 새로운 요인들을 조절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의 환경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기술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의 기술이 발달되었다고 또다른 기술이 저절로 발달하는 것도 아니며, 같은 수준에 연관된 기술들이 동시에 발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발달이란 원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한 아동은 모든 기술에 있어서 동일한 수준을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Fischer는 비동일성, 즉 수평적 처짐을 발달에 있어서 예외로 보지 않고 규칙으로 간주한다. 그는 또한 아동의 능력을 최적 수준과 기능수준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바, 능력이 측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서도 행동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발달적 격차를 보기 위하여 두가지 다른 영역, 즉 나이역할과 성역할에 대한 발달 순서를 비교하였다. 환경적 지원에 의한 격차를 보기 위하여는 두가지 다른 조건, 즉 높은지원 조건과 낮은지원 조건에서 검사를 하였다.

나이역할과 성역할의 발달에 있어서 발달적 순서와 발달적 처짐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 1. 학령전 아동의 나이역할과 성역할에 대한 이해는 Guttman 척도에 맞는 예측할 수

있는 5단계의 순서를 거쳐 발달할 것이다.

가설 2. 두가지 역할과제에서 아동이 통과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는 아동의 나이와 의미있는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3. 아동은 성역할과 나이역할에 대한 이해에서 유사한 발달적 유형을 보이지만, 두 역할의 발달에는 수평적 처짐이 나타날 것이다.

가설 4. 아동은 지원정도에 따라 행동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피험자

피험자는 서울에 살고 있는 중류층 아동들로서 Y대학교 부속 어린이 생활연구원에 다니는 110명의 아동들 중에서 성별과 나이를 기준으로 72명이 선정되었다. 피험자의 연령은 3, 4, 5세의 세그룹으로 나누고, 각 연령집단의 남여의 평균나이가 유사하도록 남녀 각 12명씩 선정하였다(3세:평균 연령 3년 5개월, 4세:남-4년 6개월, 여-4년 5개월, 5세:남-5년 5개월, 여-5년 4개월).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아동의 연령(3), 성(2), 실험순서(2), 역할과제(2) 그리고 실험조건(3)이었다. 피험자간의 변인들은 나이, 성, 실험순서였으며, 피험자내의 변인들은 역할과제와 실험조건이었다.

도구 및 설비

학령전 어린아동들의 역할 발달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형과 장난감 등을 사용한 가상놀이를 통하여 나이와 성역할의 구체적인 특징과 행동들을 측정하였다. Van Parys(1983)가 개발한 나이변화와 성불변의 과제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두가지 인형이 사용되었다. 나이변화를 위하여는 Van Parys가 직접 사용하였던 밀어올리는 인형이 사용되었는데, 이 인형은 Fisher-Price 회사에서 나온 인형에서 성을 구별할 수 있는 머리카락을 제거하고 머리카락이 없는 둥근머리를 원통모양의 몸통에 연결시켜 만들어졌다. 그것을 둥근 플라스틱 원통 속에 집어넣고 밀을 뚫어 손가락으로 밀어 올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체인형의 높이는 11cm로서 밀어올리면 16.5cm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였다. 성불변성을 위하여는 검은머리카락을 한 Flinstone Kids 인형들이 사용되었다. 인형들의 크기는 높이 9cm 정도였다. 그 외에 인형이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의 장난감과 물건들이 사용되었다.

측정 절차

실험대상 아동들과 친숙하여지기 위하여 실험자가 유아원의 보조교사로서 일주일 동안 아동들과 함께 생활을 하였다. 그 후 두번의 만남에서 나이변화과제와 성불변과제를 각기 한가지씩 실시하였다. 실시순서에 의한 차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피험자의 반은 나이변화과제를 첫째날 실시하고 나머지 반은 성불변과제를 첫째날 실시하였다. 각 아동당 하루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정도였으며, 두번째의 실험에서는 5분동안의 자유놀이가 첨가되었다.

환경적 지원 상황에 따른 아동의 행동을 비

교하기 위하여 모든 아동들은 세가지 조건, 즉 유도모방(elicited imitation), 자유놀이(free play), 최선의 이야기(best story) 조건에서 검사를 받았다.

유도모방조건: 아동으로 하여금 실험자가 인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잘 지켜보게 한 후 아동이 같은 인형을 사용하여 실험자가 만들었던 이야기처럼 해보도록 요구한다. 이해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과제의 다섯 단계에 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준비하였으며, 어린아동들이 좌절을 느끼지 않도록 쉬운 것부터 차츰 어려운 것의 순서로 제시되었다.

자유놀이 조건: 모방조건에서의 두 과제가 모두 끝난 후, 아동에게 혼자서 5분동안 자유롭게 놀면서 인형과 장난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더 만들어보라고 지시한다.

최선의 이야기 조건: 자유놀이 후에 실험자가 다시 아동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동안 만들어 본 이야기 중에서 제일 재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한다.

자유놀이와 최선의 이야기 조건에서의 행동은 모방조건의 5단계에 근거하여 내용의 복잡성에 따라 단계로 분류되었다.

채 점

아동의 모든 행동은 비디오 테잎으로 녹화가 되었으며, 실험 실시동안 세사람에 의하여 점수화 되었다. 실험자와 실험자실을 전혀 모르는 두명의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채점을 하였으며, 대학원생들은 실험실 밖에서 일방경을 통하여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고 각 단계에서의 성공여부를 기록하였다. 채점자간의 상관은 모방조건에서의 나이변화과제에 대한 실험이 r

(38)=.99, $P < .0001$ 으로 가장 높았고 최선의 이야기 조건은 $r(23)=.87$, $p < .0001$ 로서 상관이 가장 낮았다. 점수는 각 단계마다 1점씩을 주어 모든 단계의 실패는 0점으로 처리하고 5단계까지의 성공은 5점으로하여 점수의 분포를 0점부터 5점까지로 하였다.

Ⅲ. 결 과

연구결과는 예측했던 5단계의 발달적 순서에 따라 아동의 나이와 성역할 개념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단계에 도달하는 연령은 두가지 영역간에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나이변화의 이해가 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의 반응은 실험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나이가 많은 아동에게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발달의 순서와 발달의 수평적 차이의 문제로 나누어 분석을 하고자 한다.

우선, 아동의 반응들을 발달적 단계로 척도화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scalogram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Green(1956)의 방법을 이용하여 재생지표(reproducibility index)와 일관성지표(consistency index)를 산출하였다. 재생지표가 나이변화 단계에서 .989, 성불변 단계에서 .997로서 거의 완벽하게 Guttman 척도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와 성역할의 발달이 예측한 5단계에 따라 순서적으로 발달함이 증명되었다. 일관성지표는 나이변화단계가 .904, 성불변단계는 .959로서 각 단계의 과제들이 일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동들은 실제로 하위의 쉬운 과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위의 어려운 과제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며, 나이변화과제에서 3명, 성불변과제에서 1명을 제외하

고 모든 아동들이 Guttman 척도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표 1과 표 2 참조).

〈표 1〉 나이변화에 대한 아동의 이해발달

발달양상	나이변화 과제의 단계					피험자수	평균연령
	1	2	3	4	5		
0	-	-	-	-	-	3	2.03
1	+	-	-	-	-	8	3.25
2	+	+	-	-	-	8	3.66
3	+	+	+	-	-	6	4.17
4	+	+	+	+	-	11	4.55
5	+	+	+	+	+	33	5.02
기타	+	+	+	-	+	2	4.29
	+	-	+	+	-	1	5.00
전체					72	

〈표 2〉 성불변에 대한 아동의 이해발달

발달양상	성불변 과제의 단계					피험자수	평균연령
	1	2	3	4	5		
0	-	-	-	-	-	2	2.96
1	+	-	-	-	-	8	3.33
2	+	+	-	-	-	10	3.49
3	+	+	+	-	-	11	4.27
4	+	+	+	+	-	27	4.82
5	+	+	+	+	+	13	5.38
기타	+	+	+	-	+	1	4.17
전체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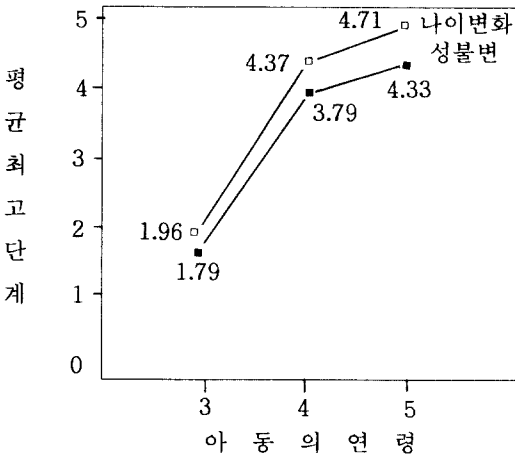
따라서 나이와 성역할 발달이 예측할 수 있는 5단계의 순서를 거쳐 발달할 것이라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아동의 나이와 아동이 정확히 모방할 수 있는 최고 단계가 서로 상관이 있는

지 알아 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는 바, 나이변화과제에서는, $r(69) = .71, p < .0001$, 성불변과제에서는 $r(71) = .76, p < .0001$ 로서 상당히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이(3)×성(2)×순서(2)×역할(2)×조건(2)의 모델에 의한 반복측정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for repeated measures)의 결과는 나이변화과제에서 $F(4, 36) = 27.02, p < .0001$, 성불변과제에서 $F(4, 36) = 55.10, p < .0001$ 로 모두 아동의 연령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두 영역에서 모두 아동들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모방할 수 있는 단계도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Duncan 사후검증에서는 나이변화과제에서는 3세($M = 1.96$)와 4세($M = 4.37$)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4세와 5세($M = 4.71$)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불변과제에서는 3세($M = 1.79$), 4세(3.79), 5세($M = 4.33$)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영역 과제 모두 성차나 순서로 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의 나이와 통과할 수 있는 최고단계와는 의미있는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2가 지지되었다.

나이역할 발달의 단계와 성역할 발달의 단계는 상관이 $r(72) = .83$ 으로서 나이변화과제에서 높은 발달 수준을 보인 아동은 성불변과제에서도 높은 이해 수준을 보였다. 한편, 나이변화에 대한 이해와 성불변에 대한 이해의 발달에 단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나이×성×순서×역할 모델의 반복변량분석을 하였다. 조건의 영향이 현저했으므로, 두 영역을 모방조건과 자유놀이조건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결과는, 자유놀이조건에서는 두 역할의 이해에 별 발달적 차이가 없었으나, 모방조건에서는 F

(1.63)=9.89, $p < .003$ 로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나이변화과제의 점수가 세 연령 집단에서 모두 성불변과제에서 보다 높았다. 즉, 아동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두 역할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이 변화에 대한 이해가 성불변에 대한 이해보다 빨리 발달한다고 하겠다(그림 1 참조). 따라서 두 역할의 이해에서 아동은 유사한 발달적 양상을 보이지만 두 역할의 발달에는 수평적 차질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3이 지지되었다.



〈그림 1〉 나이변화와 성불변에 대한 이해의 발달양상(모방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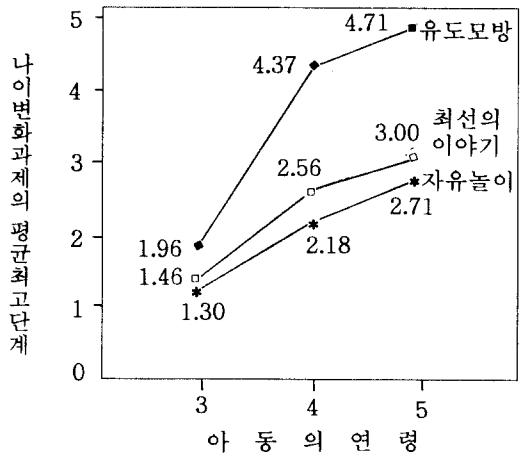
실험조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F(1,36)=38.22$, $p < .0001$ 로서 두 영역에서 모두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은 자유놀이나 최선의 이야기만들기와 같은 낮은 지원의 조건에서 보다 유도모방이라는 높은 지원의 조건에서 더 높은 단계를 통과하였다(표 3 참조). 특히, 연령집단과 실험조건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F[2,36]=4.98$, $p < .01$),

높은 지원의 조건과 낮은 지원조건에서의 아동들의 수행의 차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와 3 참조).

〈표 3〉 아동의 연령과 최고단계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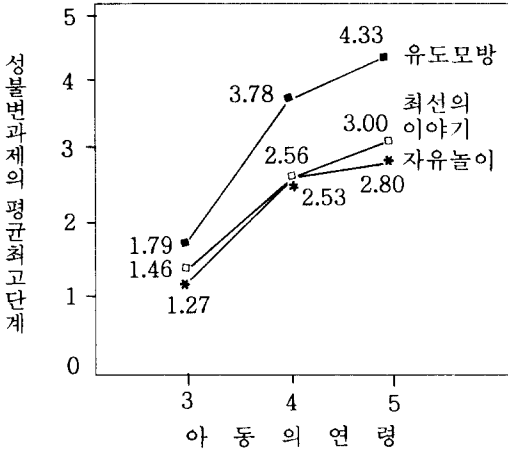
	평균 연령			평균
	3	4	5	
나이변화 (모 방)	1.96	4.37	4.71	3.68
성 불 변 (모 방)	1.79	3.79	4.33	3.31
놀이변화 (자유놀이)	1.30	2.18	2.71	2.23
성 불 변 (자유놀이)	1.27	2.53	2.81	2.37
(최선의 이야기)	1.46	2.56	3.00	2.48

* 종속변인의 점수범위는 0점부터 5점으로서 이해가 가장 낮은 단계를 0점, 이해가 가장 높은 단계를 5점으로 하였다. ()는 실험조건



〈그림 2〉 여러 조건하에서의 나이변화 개념의 발달양상

Ⅳ. 논 의



(그림 3) 여러 조건하에서의 성불변 개념의 발달양상

그러나 다른 조건하에서의 아동들의 반응들은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서로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모방조건에서 높은 수준의 반응을 보인 아동들이 자유놀이나 최선의 이야기 조건에서도 높은 수준의 행동을 보여주었다.

(표 4) 여러 실험조건하에서 도달한 최고단계들간의 상관

	나이변화 모방	나이변화 자유놀이	성 불 변 자유놀이	성 불 변 최선의이야기
나이변화 모방	.83(72)**	.38(48)**	.48(51)**	.51(52)**
성 불 변 모방		.51(48)**	.58(51)**	.56(52)**
나이변화 자유놀이			.82(53)**	.60(44)**
성 불 변 자유놀이				.80(44)**

* p < .01. ** p < .001. ()는 피험자 수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은 아동이 언제 사람의 나이 차이를 알게 되며, 어떻게 '늙다'와 '젊다'를 단정하는지, 언제 아동자신의 성을 알게 되며, 언제부터 남성적, 여성적인 것을 분류하기 시작하는지 등의 문제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한 연령의 아동들이 어떠한 성역할이나 나이역할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였지만, 학령전기 동안 이 두 역할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달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주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 아동의 나이역할과 성역할에 대한 이해의 발달을 동시에 보며, 지속적인 변화를 보기 위하여 Van Parys가 사용한 나이 변화에 관한 5단계의 과제와 성 불변에 대한 5단계의 과제를 3세부터 5세 아동들에게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두 역할에 대한 이해는 학령전기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발달하며, 그 발달의 양상은 두 영역에서 서로 비슷하나, 나이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조금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역할에 대한 이해의 발달 면모는 4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완벽학 Guttman 척도에 부합되어 발달에는 순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령전 3년의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나이와 성에 대한 아동들의 이해는 매우 많은 변화를 보여 주었는데, 3세경에는 아직 인형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도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3세 반 정도에는 아이, 여아 등의 역할행동은 이해를 하였으나, 어른과 아이와의 관계, 남아와 여아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나 여아를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4세경에는 아이의 역할과 연관지어 어른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남아의 역할과 연관지어 여아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었다. 5세가 되어서야 비로서 나이에 따른 차이를 여러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여러가지 외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Kohlberg(1966)는 아동이 처음에는 사람의 크기 차이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이의 차이를 알게 된 후에 성의 차이를 알게 된다고 하였다. Van Parys(1983)의 연구에서도 성역할에 대한 이해보다 나이역할에 대한 이해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의미있는 차이가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도 나이역할 이해가 성역할 이해보다 빨리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달의 차이는 Van Parys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아동들이 성역할보다 나이역할을 빨리 이해한다는 사실은 외국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두 역할의 이해 차이가 외국의 연구에서 보다 더 크다는 것은 문화적인 차이에서 올 수도 있는 결과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나이에 따라 서열이나 대우가 달라질 뿐 아니라, 언어에도 존대말과 반말의 차이가 분명하여 많은 아동들이 어려서 부터 존대말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형제끼리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형, 언니, 동생과 같이 나이에 따라 분류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한국의 아동들은 일찍부터 어른과 아이의 차이를 터득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각기 다른 실험조건하에서의 아동들의 수행의 차이는 놀라울 정도였는데, 대부분의 아동들은 모방조건에서 훨씬 높은 수준의 행동을 보였다. 특히, 연령이 많아질수록 실험조건에 따라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낮은 지원의 조

건에서는 나이, 성역할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아동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표현되기 위하여는 높은 지원에서의 실험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피험자 중 많은 아동들이 자유놀이를 하기 위하여 실험실에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하였으며, 자유놀이를 하겠다고 한 아동들도 혼자 남겨지면 장난감은 건드리지 않고 두리번 거리거나 아예 방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낮은 지원조건은 나이 든 아동뿐만 아니라 한국아동들에게는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하겠다. 실제로 72명의 아동들 중 나이변화와 성불변영역에서 자유놀이를 모두 한 아동은 43명에 불과하였다.

유도모방조건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기기는 하지만, 한국아동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Van Parys의 연구에서는 모방조건에서 5단계를 성공하지 못한 아동들 중 많은 아이들이, 모방에 실패한 후에 묻는 질문에서는 5단계의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음이 판명되어져 이들은 4단계와 5단계의 중간단계인 4 1/2단계로 분류하였었다. 그들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은 모방하지 못하였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본 연구의 아동들은 모방조건에서 5단계를 통과한 27명 중 21명이 그 단계를 이해하고 있지 못함이 모방 후의 질문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볼 때, 일부 아동들은 모방조건에만 의존하여 평가가 된다면 과대 평가되어 질 위험이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모방조건이 자유놀이나 최선의 이야기 조건보다는 아동의 성과 나이역할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수준을 다시 점검하는 절차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 아동이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초기에 사용하는 자연적 범주이며 동시에 사회적 범주인 나이와 성에 대한 발달을 살펴 보았다. 나이와 성이라는 기본 개념의 발달을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아동들이 더욱 복잡한 사회역할들을 이해하는 과정을 알아 볼 수 있는 적절한 기틀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Bem, S. L. (1984). Genital knowledge and gender constancy. unpublished manuscript.
- Bem, S. L. (1988). Rethinking children's thinking about gender: How inevitable is childhood gender traditionalism? unpublished manuscript.
- Bertenthal, B. I. (1981). The significance of developmental sequences for investigating the what and how of development. In K. W. Fischer(Ed.). Cognitive development: New direction for child development (No. 12). (pp. 43-45).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Publishers.
- Brainerd, C. J. (1978). The stage question in cognitive-developmental theory. Th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 173-213.
- Case, R. (1985). Intellectual Development: Birth to adulthood. New York: Academic Press.
- Case, R., & Khanna, F. (1981). The missing links: Stages in Children's progression from sensorimotor to logical thought. In K. W. Fischer(Ed.). Cognitive development: New direction for child development (No. 12). (pp. 21-32).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Publishers.
- Edwards, C. P. (1984). The age group labels and categories of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440-452.
- Fischer, K. W. (1980). A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The control and construction of hierarchies of skills. Psychological Review 87, 477-531.
- Fischer, K. W. (Ed.). (1981). Cognitive development: New direction for child development(No. 12). San Francisco: Jossy-Bass Inc., Publishers.
- Fischer, K. W., & Bullock, D. (1981). Patterns of data: Sequence, synchrony, and constraint. In Cognitive development: New direction for child development. (pp. 1-20). Sna Francisco: Jossey-Bass Inc., Pubishers.
- Fischer, K. W., & Lazerson, A. (1984). Human development: From conception through adolescence.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Flavell, J. H. (1971). Stage-related properties of cognitive development. Cognitive Psychology, 2, 421-453.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The Basic Books.
- Green, B. F. (1956). A method of scalogram analysis using summary statistics.

- Psychometrika, 1, 79-88.
- Kagan, J., Mount, R., Hiatt, S., Linn, S., Reznick, J. S., Richman, C. L., & Katz, M. M. (1981). The second year: The emergence of self-awarenes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ohlberg, L. (1966). A cognitive-developmental analysis of children's sex-role concepts and attitudes. In E. Maccoby (Ed.),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pp. 82-173),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Kratochwill, T. R., & Goldman, J. A. (1973).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judgement of age. Developmental Psychology, 9, 358-362.
- Kuhn, D., Nash, S. C., & Bruckner, L. (1978). Sex role concepts of two and three-year-olds. Child Development, 49, 445-451.
- Lewis, M. & Brooks-Gunn, J. (1979). Social cognition and the acquisition of self. New York: Plenum Press.
- Looft, W. R., Rayman, J. R., & Rayman, B. B. (1972). Children's judgement of age in Sarawak. Judgement and reasoning in the child(M. Warden, Tran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Piaget, J. (1969). The child's conception of time. (A. J. Pomerans, Trans.). New York: Ballantine Books.
- Slaby, R. G., & Frey, K. S. (1975). Development of gender constancy and selective attention to same-sex models. Child Development, 46, 846-856.
- Van Parys, M. M. (1983). The relation of use and understanding of sex and age categories in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Denver, Colorado.
- Watson, M. W. (1981). The development of social roles: A sequence of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In K. W. Fischer (Ed.), Cognitive development: New direction for child development. (No. 12). (pp. 33-41).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Publishers.
- Watson, M. W., & Fischer, K. W. (1980). Development of social roles in elicited and spontaneous behavior during the preschool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483-494.
- Wohlwill, J. F. (1973).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New York: Academic Press.